

시끌벅적 e-스타



'생활속 지혜' 담은 동영상 화제 만발

'음료수로 아광봉 만들기', '고무줄 이용해 병뚜껑 열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커뮤니케이션(www.daum.net)과 유튜브(www.youtube.com)에 올라온 '음료수로 아광봉 만들기' 동영상은 1분 15초안에 쉽게 할 수 있는 음료수와 약간의 베이킹 소다(baking soda), 과산화수소만으로 아광봉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

떨어뜨린 뒤 힘있게 찾아낸 경험을 살려 만든 '손전등을 사용한 렌즈 찾기' 동영상에 공감하는 네티즌들도 많았다. 무엇보다 손전등 불빛에 생기는 그림자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노하우를 알려준다.

나의승의 음악산책

살다 보면 수십년을 사귀 친구의 이름을 짧은 순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머시아"라고 불려야 하는데, 황급하고 짧은 순간 바보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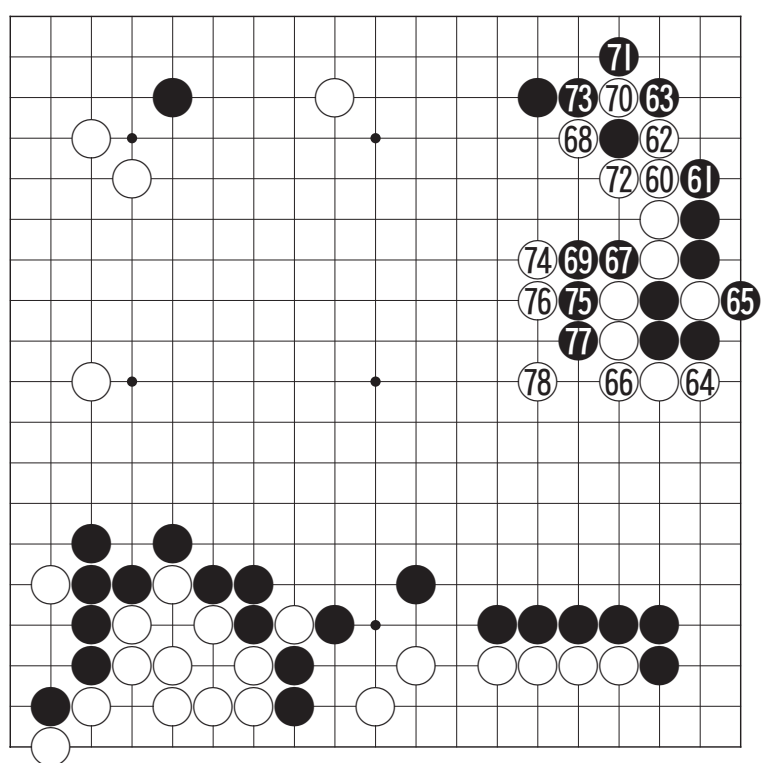
수북이 쌓였고, 결국은 독립된 장르가 생겨난다. 그리고 이제는 영화음악을 남긴 거장의 이름들이 나열된다. 그 중에서 '엔니오 모리코네' 그

상 현실의 공간에 펼쳐지는 예술이다. 영화는 인류의 자화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음악이 공존한다.

영화음악의 추억 '엔니오 모리코네 & 요요마'

없는 방법으로 살아있게 하는 것이, 필자는 삶의 짙한 풍경 속에 간혹 존재하는 웃음과도 같은 음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음악의 존재감은 바보가 될 수 있는 때에도 웃음으로 넘기는 것에 무리가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의 음악적 쾌적은 말하기가 새삼스럽다. 말 발음 소리, 총소리, 그리고 휘파람의 '마카로니 웨스턴'에서부터 '미션', '시네마 천국', '언터처블', '모세와 마르코 폴로'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화 음악들은 그 자체로 영화의 역사와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난 10월3일 그의 영화음악 오케스트라는 한국에 공연을 왔었고 공연을 관람한 사람들은 빠짐없이 한마디씩 할 정도로 감동을 주었다.



선택의 갈림길 5보(60~78) 최강부 손준승 1국 백 김희관 5단 흑 선계성 6단 선계성 6단의 강공에 백이 괴로운 장면이다. 김희관 5단은 백 60으로 나가 일단 버티고 본다. 백 66의 곳을 보강하는 것이 정수로 보이지만 흑이 이곳을 두게 되면 실리와 자세가 너무 좋아 건지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바둑소식 이세돌, 장하오 꺾고 4강 이세돌 9단이 10일 삼성화재 유성연 수원에서 열린 제12회 삼성화재 세계 바둑대륙 8강전에서 중국의 장하오 9단에 343수까지 가는 접전 끝에 흑 63반승을 거두고 4강에 진출했다.

굿모닝 잉글리쉬 <1009> The Yankees win by four! 양키즈가 4점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A: The bases are loaded, Joe. B: That's right, Vin. What a game!

오하오우 니혼고 <1009> 飲(の)みにいこうか 한잔 하러 갈까 A: 今日(きょう)飲(の)みにいこうか. B: いいよ. 太郎(たろう)も呼(よ)ぼう.

니하오 쑹구위 <199> 复印纸没了 복사용지가 없어요 A: 复印纸没了, 该买了. B: 有U盘吗? 给我两个.

한자 이야기 <626> 형설지공(螢雪之功) 개뿔레 형, 눈 설, 어조사 지, 공 공 형설지공(螢雪之功)은 가난한 사람이 반딧불과 눈빛으로 글을 읽어가며 고생 속에서 공부함을 일컫는 말이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1일 (음 9월 1일 戌寅) 36년생 신중환 생각이 앞서 일을 살펴봐라. 48년생 외형을 줄이고 실리를 바꾸어라. 60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 성립되거나 진행까지는 조기상조. 72년생 동업은 불화가 된다.

더마플라스트 밴드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제품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